

오피니언

光日春秋

김승환



최근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 가로 끌어 올린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.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의 교육에 대한 이 야기이다.

진학생의 경우에도 과학의 핵심인 물리· 화학의 심화과정을 선택한 학생이 각각 7 퍼센트와 13퍼센트에 불과해서 대학에서 의 정상적인 전공교육이 불가능해졌다.

미래를 위한 선물

것은 우수한 노동력과 높은 기술력 때문 이었다. 21세기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에 서 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 3관불의 벽을 넘어 4관불에 이르는 선진국에 진입하려 면, 과감한 승부수를 과학교육에 던져야 한다.

가고 있는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은 오로지 학생의 선택에만 의존함으로써 공 교육의 목표가 실종되고 불필요한 과목간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.

현제 세계 과학기술의 관도는 기존 미 국과 유럽의 선진국 중심에서 한국·중국· 일본 등 아시아권으로 이동하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. 국 가적 관점에서 과학교육의 중장기적 방향

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. 미국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해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매년 1만 명의 수학·과학 교사를 양성하고 미국과학재단 예산의 10%를 과학교육에 투자하는 등 수학·과학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국가적 과제를 미국과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다.

시설

창업의욕 꺾인 지역경제 앞날이 걱정이다

지난해 광주·전남 창업시장에 찬바 람이 몰아쳤다. 2006년 광주·전남의 신 설법인 수는 전년에 비해 11.6%나 급 감한 2천504개에 불과했다. 이는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7년과 비슷한 수치로 최고치에 달했던 2001년의 3천 726개에 비해서는 무려 1천222개(32. 8%)나 줄었다.

하지만, 최근의 창업 부진을 산업구조 전환과 대내외 경제 불안 탓으로만 돌 리긴 어렵다. 건설업만 보더라도 중앙집권적 발상 으로 수도권과 똑같이 무차별적인 규제 로 일관해 지역건설업의 기반을 무너뜨 려다. 제조업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를 야금야금 완화해 지방의 기업유치를 어렵게 했다.

“민생문제 만든 책임 없다”는 노 대통령

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밤 ‘참여 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’ 을 주제로 신년연설을 했다. TV를 지켜 본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지난 집권 4년 을 차분하게 평가하고 남은 1년 국정운 영에 희망을 안겨줄 것을 기대했다. 하 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.

연설을 듣고는 야당은 정책을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는 것이다. 경제 정책을 일관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책의 실패를 야당과 인연 때문이라고 한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었을까.

기고

한병선



내게는 두 딸이 있다. 그래서인지 사 람들은 종종 딸 키우는 재미에 대해 문 곤 한다. 딸이 풀이나 있으니 얼마나 좋 겠느냐는 부러운 듯한 이야기다. 하지 만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. 이유는 두 가지다. 우선 내 딸들은 다른 집 딸들처럼 부모 마음 잘 헤아리고 이해해주는 아이들이 아니며, 또 다른 하나는 딸들은 왜 재미 만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는 이유 때문이다.

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. 우리 사 회의 이중성 때문이다. 우리 모두의 내 부에는 아들과 딸들에 대한 판단 기준 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. 이 모순 된 기준은 아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되 는 반면, 딸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. 이런 불공정성은 남성들의 여성비하, 여성상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. 아들에게는 쉽게 용납이 되지만 딸들에게는 용납이 잘 되지 안 된다. 여 기에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더뎌지면 대책 없는 상황으로 비약되기도 한다. 항상 그렇듯이 가정교육이란 것이 현실 적으로는 여자를 옥죄는 편리한 무기로 사용되어오기 때문이다. 이 잣대가 아들 과 딸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

말들이 씩씩해라

쯤으로 생각한다면, 별수 없는 일이지 만,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구석들이 많다. 나도 한 때는 내 딸들이 부모에게 순 중하고 살근살근 재미를 주는 존재이길 원했다.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같 키우는 재미라고 의심 없이 생각했었다.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좋은 것 인지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 다. 순종과 살근살근 재미를 원하는 내 생각이 혹시 딸들의 주체적인 삶을 방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. 이후, 나는 내 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 처럼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는 존재보다 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주길 더 원하게 되었다. 때론 아버지를 딛고 넘어야하 린다고도 생각했다. 아버지에게 좋은 딸이 되기보다는 자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기대 한 것이다.

보다는 딸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전유물로 작용한다. 이런 속에서 딸들 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나는 잘못하면 가정교육을 제 때 시키지 못한 가장의 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. 여자의 목소리가 커져 갈등이 불거질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 욱 커지게 된다. 나는 지금까지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“왜 여자가”, 혹은 “여자가 왜 그러니” 라는 말을 던져본 일이 없다. 오히려 “여자가 뭐 어때서”, “여자가 씩 씩해야 돼”, “여자가 못 할일은 없단 다”란 말을 수없이 해왔다. 그럼에도 훗 날 내 딸들이 아내와 며느리가 되었을 때 도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 이 없다. 여기에 나의 걱정이 있다. 의식 의 모순 속에서 목소리 크게 딸을 키우 려는 아버의 작은 염려다.

<교육평론가>

명절 연휴엔 운동성 발휘 운구차 갖길 운행 허용했으면

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추석때 기 억이 떠오른다. 추석 연휴 첫날 호남고속도 로 하행선 광주 인근 도로에서 교통 체증으 로 움푹달라붙고 있는데 장례차를 비롯 해, 대형 버스와 승용차 등이 한동안 거북이 걸음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오자 차다 못해 갖길로 이동하는 것을 접했다.

들었다. 추석과 설 명절, 7~8월 휴가철 등 교통 체증이 심한 경우 운구차에 대해서는 고속 도로 갖길 통행을 허용해주면 어떨까. 고인을 장지로 옮겨야 하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운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. 운구차는 눈에 띄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다고 운구차 표시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는가. ▲김기원·광주시 서구 세하동

◇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.

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.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,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 고나 사진, 만화, 만평도 환영합니다. 채택된 원고는 고로도 지급합니다.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.

독자마당

FTA가 가져올 부작용 미리 대책 세워야

강진에서 한우를 키우시는 형님과 얼마 전 전화 통화를 하는데, FTA에 따라 농산 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산물값이 떨어 지는것 말고도 다른 부작용이 더 있다고 했다. 수입농산물에 섞여 들어오는 외래 잡초 가 문제라는 것이다. 낙농을 하다가보니 소에 먹일 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전라도 지역 뿐만 아니 라 전국 낙농·한우 농가들의 초지에 외래 잡초가 자라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. 수입 고기는 사람이 직접 먹는 음식이니 검역이 철저히 이뤄지고, 그야말로 손꼽은 한 배추작 하나라도 제대로 찾아내서 수입 금지지를 시키지만 수입~수확~단위로 들어 오는 사료용 곡물에 섞여 들어오는 외래 잡 초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찾아

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. 사료용의 경우 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배설물로 나오도 그 퇴비를 들에 뿌리면 씨 는 그대로 남아 발아하면서 확산된다고 한 다. 잡초의 번식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빠르다. 특히 검역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수입되 는 외국 농산물에 대해선 그야말로 무대책 인데 이런식으로 전국 들녘에 외래잡초들이 퍼져간다면 그걸 무슨 재주로 막을 것 인가. FTA가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중 이같은 문제점도 크므로 당국에서는 우리 농촌 보호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도 염두에 두 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. ▲유지영·목포시 수감동

“지진 안전지대 따로없다” 유비무환의 지혜를

지난 20일 저녁 강원도 평창에서 리히터 규모 4.8의 강진이 발생해 전국을 깜짝놀라 게 했다. 평창, 강릉을 비롯한 진양지 주변 주민들은 놀라 밤잠을 설치며 불안한 가슴 을 쓸어내려야 했다. 바다 건너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지진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 다. 진원지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상상만 해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. 이번 지진은 중간급에 해당되지만 우리나라에서 27년만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 한반도의 지 하층이 암반으로 되어있어 그 충격이 보다 크다고 한다. 큰 피해없이 여진이 이어졌지만 지진 전 문가들은 지진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한반도 에서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 생하고 있는 등 수년내에 5.0 규모 이상의 강 진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. 따라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 가 아니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앞으로 내진설계와 지진예측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 해 나가야할 것이다. ▲박경원·광주시 방재관리과

이번 지진으로 광주·전남을 비롯한 한반 도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 됐다. 자연재난은 사전에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 는다. 유비무환 안하면 무비유환이라 했던 가, 큰 국민이 하나가 되어 평상시에 미리 대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재앙도 막아낼 수 있 지않을까 한다.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, 그집 안에 있을 경우에는 사용되는 불을 끄고 테 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며 비상출 입문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▲고층 건물사이 에 둘러쌓여 있을 때에는 창문유리나 간판 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머리를 보호하여 가 까운 공원이나 공터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층의 복도 로 대피해야 하며 ▲대중교통 이용시에는 강한 충격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잡이나 기둥을 잡고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등의 행동 요령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. ▲박경원·광주시 방재관리과

無等鼓

‘경기 3할 날씨 7할’ 유행어에서 자 주 회자되는 말이다. 그만큼 날씨가 매 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. 얼마 전 국내 한 편의점 업체가 날씨 에 따라 맥주 판매량이 달라진다는 흥 미로운 통계 결과를 내놓았다. 1년 실적 을 집계한 결과 맥주는 더운 여름철 호 린 날에 가장 많이 팔렸다. 맑은 날 매출 을 100으로 했을 때 흐린 날은 116을 기록 했다.

관측에 열을 올리고 있다. 겨울 가뭄으 로 울 볼 극심한 황사가 예상되면서 여 행업계는 매출 감소, 제약업계는 황 사특수를 기대하고 있다. 기상이변이라 는 돌발 변수가 국내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.

기상이변



세계기상기구(WMO)는 ‘한 지역을 기준으로 과거 25년간의 평균치에서 현 저하게 동떨어지는 날씨’를 기상이변 으로 정의했다. 기상 이변의 원인에 대해서 는 의견이 구구하다. 그러나 화석연료 과다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. 화석연료를 대신할 재생에너지 개발이 한 창이다. 특히 태양광 발전소가 대안으로 부 상하고 있다. 전남바 역은 타 지역보다 일조량이 풍부한데 지렁이 땅갈 등 최저지로 꼽히고 있다. 현재 전국 태양광 발전량의 85%를 전 남이 차지할 정도다. 기상이변은 기업활동 관심을 가질 사 안이 아니다.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 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. /김재필 사회2부장 ajkim@kwangju.co.kr

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, contact info, and subscription rates.